

# 에너지전환포럼 청년 프런티어 2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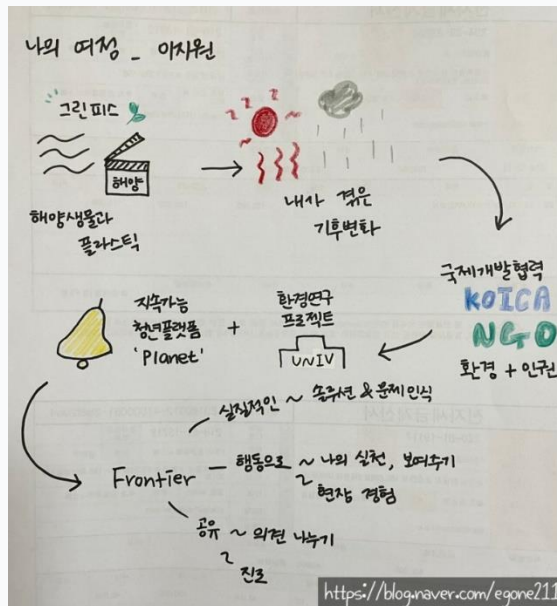
2021.01.11~19 역량강화프로그램

프런티어 2기의 첫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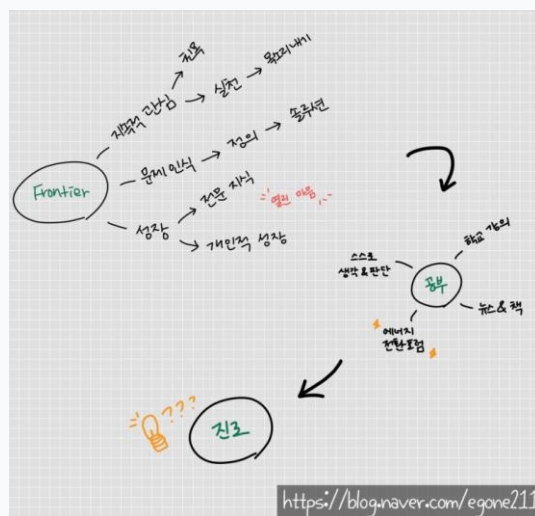
일주일 동안 많은 활동과 강의를 있었기에 잊기 전에  
기억에 남았던 활동들을 뽑아봤다(매우 주관적)

## 1. 첫 날 아이스브레이킹!

프런티어의 여정을 그렸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. 플라스틱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2017년이었으니 꽤 오래 전인데 이를 실천하고 공부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. 기자단, 캠페인, 환경단체 등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나도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다짐했다! 그래서 이 프런티어 활동이 더 의미있게 다가왔다.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, 환경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.



프런티어가 되기까지의 여정



프런티어로의 여정

## 2. 팀을 정하는 과정들

우리 팀 이름 : 소상공인(소외없이 상통하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람들) 12 일, 13 일 그 외 강의 인사이트 정리 등 그룹 활동이 많았다. 바로 팀이 정해질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활동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다. 팀이 확정되고 대화를 나누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. 며칠동안 소회의실에서 내 관심분야로 얘기를 나누고 강의를 들으며 구체화 시킨 후 방향성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 팀이 되어 주제를 잡아갈 수 있었다. 사무국에서 최대한 배려해주신게 아닐까.. 덕분에 마음 맞는 팀원들을 잘 만나 너어무 만족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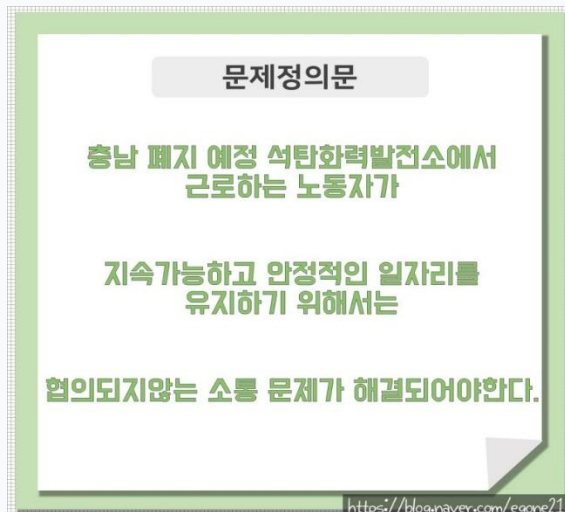


팀이 정해지기까지 건물, 재생에너지 확대, 주민수용성, 제주도 풍력발전 등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. 다른 팀들의 활동들도 넘 궁금☺

## 3. 문제정의 워크샵

MYSC 에서 진행한 워크샵. 문제정의를 전문적인 틀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다. 지금까지진 결과물 도출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과정을 통해 과정의 중요성을 알았다.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, 그러기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. 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을 정리해서 푸는 것과 정의한 문제를 발전시켜 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.... 그래도 우리 팀이 관심있게 생각하는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!

★숨겨진 이해관계자, 수혜자 파악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계속 상기하기



우리팀은 탈석탄/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생길 일자리 문제에 집중했다. 충남에 발전소가 가장 많고, 보령 1,2 호기 조기 폐쇄도 이뤄졌기에 충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. 대상은 우선 정규직+비정규직이고, 문제로 본 것은 노동자의 의견 반영, 정보 제공, 구체적 계획 부재 등이 있다. 이걸 처음 문제정의로 잡은 방향이기에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수정되기도 할 것 같다.

# 역량강화프로그램 강의 라인업, 느낀 점 정리

## 강의 라인업

1/12 13:00 ~ 14:30	그린피스 기후에너지 김지석 전문위원	1강.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해결과제
1/12 14:30 ~ 16:00	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	2강. 한국의 탄소중립 비전, 과제와 수단
1/13 16:00 ~ 17:15	WWF Europe Climate & Energy Senior Policy Officer Alex Mason	3강. EU 그린 딜,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전
1/13 17:15 ~ 18:30	Wupertal Institute for Climate, Enviroment, Energy Vice Head Berlin Office Timon Wehnert	4강. 독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
1/14 13:00 ~ 14:30	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	5강. 그린뉴딜과 전력산업의 새로운 방향

1/14 16:00 ~ 17:30	에너지기술연구원 윤재호 본부장	6강. 기후위기의 도전과 과학기술 혁신
1/15 13:00 ~ 14:30	그리드위즈 박창민 전무	7강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디지털기술과 에너지효율 혁신
1/18 13:00 ~ 14:30	동국대학교 박진희 교수	8강.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
1/18 14:30 ~ 16:00	한화자산운용 은기환 펀드매니저	9강. 그린스완 시대의 그린뉴딜, 금융의 역할
1/19 16:00 ~ 17:15	Energinet Head of flexibility and ancillary services Peter Markussen	10강. 덴마크의 에너지전환, 성공과 과제
1/19 17:15 ~ 18:30	Orsted Lead Advisor, Regulatory Affairs Andrew Ho	11강. EU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혁신

출처 : 에너지전환포럼 인스타그램(@et\_youth\_frontiers)

총 11 개의 강의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.  
다 좋은 강의였지만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기억에 남았던 것 위주로 정리!

## 1. EU 강의

중 통역 기능이 엄청 신기했던 1 인... 접해보지 못한 해외 사례를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다. 해외 사례는 항상 논문이나 내용이 요약된 기사들로만 접했기에 이런 기회는 영광!! 🙏🙏

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뛰어나지만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, 제도, 소비나 생활 패턴, 산업구조 등등 함께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. 복합적인 것도 많고. 선두를 달리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어도 이를 펼칠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느꼈다.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.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수준을 보고 놀랐고,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!

## 2. 강렬했던 첫 강의 : 1강 김지석 강사님

강의 중 가장 솔직하면서 막힘없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. 재밌었고, 집중이 잘 됐다. 맥킨지 보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다.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나왔던 많은 오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듯했다. 기억에 남는 것은 전환 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었다. 에너지 전환 시 11 만의 일자리가 생기고, 5 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. 그렇다고 해도 6 만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.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, 사라지는 일자리와의 연관성은 얼마나 있고 감수할 리스크나 재취업 훈련이나 직업 훈련처럼 전환에 대비할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. 이에 대한 궁금증들도 함께 생겼던 시간이었다. 지금의 팀 주제에 다가갈 수 있었던 첫 고민이었다.

## 3. 8강 현장 강의

에너지 분권과 지역 분권에 관한 강의. 현장 강의 신청을 해서 교수님을 직접 뵙고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팀 멘토님이셨다! 한결같은 관심사..? ㅋㅋㅋ 독일과 캐나다 사례가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강의였다. 에너지전환 관련 법 제정, 지자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하위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것,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알았다. 캐나다 위원회는 노동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노총 위원장(?)이 공동 대표로 있다고 한다. 소통 문제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우리팀에게 방향을 참고해볼 수 있는 사례였다.